

## 부천역 북부광장... ‘부천 만화 특화거리’ 변모

‘상상’ 주제... 만화 · 애니메이션로 꾸며진 거리  
370m구간 32억5천만원 투입... 12월 선포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부천 만화 특화거리’ 조성 시뮬레이션.

‘부천의 관문’ 부천역 북부광장(7천㎡) 주변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특화된 인프라 구축 및 가로·도로시설물, 조형물, 간판, 경관 조명 등에 디자인 요소를 적용 ‘부천 만화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부천 만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상상→상상 ON→상상 그 이상’을 주제로 아이덴티티(Identity·동일성)와 스토리(Story)가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간판, 공공시설물, 조형물 등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S자형 보차도 설치를 비롯해 지중화사업과 특화거리 도로 포장, 배수계획, 조정계획, 야간경관 조명계획 등이 추진된다.

부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천 만화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를 지난 19일 오전 시청 3층 소회의실(대회의실)에서 김만수 시장 주재

로 만화작가, 자문위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할 환경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부천역 북부광장 주변 ‘부천 만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광장 부근인 원미구 삼곡동 175-7번지 일원 27개동 건물과 178개 상가가 들어선 이면도로 370m 구간에 총 32억5천만원(도비 50%, 시비 50%)의 예산을 들여 추진된다. 기본설계(1억6천700만원)와 실시설계(7천300만원) 등 용역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비는 30억원으로 올해 말 완공으로 목표로 추진된다.

‘부천 만화 특화거리’는 부천시의 중심이 되는 ‘상징거리’, 이야기와 볼거리가 풍부한 ‘특화거리’, 가로경관의 형태가 독특한 ‘매력거리’, 사람들이 활발한 문화가 일어나는 ‘문화거리’ 등으로 꾸며진다.

이는 부천역 북부광장이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변 경관의 유해 요소를 정비하고, 편리한 보행체계 개선을 통해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부천 만화 특화거리’ 조성 구간 내 들어서 있는 전신주 11개에 대해 16억원(부천시 8억원, 한국전력공사 8억원)을 들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변압기 2곳을 설치해 전신주가 없는 공간으로 말끔하게 단장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부천역 북부광장의 ‘부천 만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상상과 즐거움이 소통하는 곳’으로 꾸며 ‘만화특별시’와 더불어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부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032)625-3675.

/강영백 기자  
storm@thebuceon.com



### PiFan2011 ‘피판 레이디’에 박보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Puchu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집행위원회(위원장 김영민)는 오는 7월14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장르영화축제인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2011)’의 홍보대사인 ‘피판 레이디(PiFan Lady)’에 영화배

우 박보영(21)이 선정됐다.

박보영은 올해 7월 개봉 예정인 공포영화 <미확인 동영상>(감독 김태영)에서 주연과 함께 주연을 맡아 예민한 심리를 훌륭하게 연기하며 ‘호러퀸’에 도전하며, <미확인 동영상>은 올해 부천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 김만수 시장, 모내기 현장 체험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 19일 오전 오정동 오정동 440-1번지 소재 이점동 씨 소우 논에서 친환경 농법인 ‘바이오 융합 벼 피

복농법’ 모내기를 체험했으며, 농업인 40여명과 ‘부천시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eon.com

## 부천시, 뉴타운 · 재개발사업 ‘쿼터제’ 도입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사업량 제한키로

부천시는 뉴타운 · 재개발의 동시 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 · 월세 대란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뉴타운 ·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 · 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 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 · 반 의사를 묻는 ‘우편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기로 했다.

부천시 뉴타운개발과는 뉴타운 · 재개발사업의 인 · 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주택 멸실 및 이주 수요의 발생을 분산시켜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 · 허가 쿼터제’는 전세 대란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등 거시적 목표를 위해 뉴타운 ·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적정사업 총량 범위 내에서 인

· 허가를 할당,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각 구역별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주택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인 · 허가 사업량(쿼터량)을 반영하고, 특히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사업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 규모 범위, 이주 총량, 주민 사업 추진 의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하되, 각 단계의 총량범위를 고려해 구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 찬반 ‘우편투표’ 실시**  
**투표율 50%이상이어야 개표**  
**미달시엔 ‘미개표’**  
**반대의견 많을 경우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전환**

시는 올해 적용할 인 · 허가 사업량에 대해 5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 · 고

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뉴타운 ·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존치정비구역 포함)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 변경 용역시 현재의 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뉴타운 ·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 · 반 양론과 주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돼 결국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 의견 수렴 시행을 위해 의견 수렴 방법, 대상 구역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찬반 비율, 투표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등 주민의견 수렴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타시 사례 검토 등을 거쳐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 등 우편투표 관리기준(지침)’을 마련, 지난 16

일 공고했다.

‘우편투표 관리지침’의 주요 골자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등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19세 이상)로 하되, 19세 미만인 1명의 소유자로 돼 있을 경우엔 법정대리인에게 투표권 부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투표인명부를 작성 및 열람 공고 후 확정된 뒤 우편투표일을 공고해 우편투표 기간 중 일체의 홍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가운데 ‘등기우편’을 이용한 투표방식으로 진행된다.

우편투표 기간은 우편투표 용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우편투표 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기표해 등기우편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표는 우편투표 다음날 공개된 장소에서 관계공무원 5명과 참관인(주민) 6명, 경찰관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하게 된다.

특히, 우편투표의 효력은 투표율이 50%이상이고, 유효투표 중 찬성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등을 이전 계획대로 추진하고, 투표율이 50%가 미달될

경우에는 미개표하고,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 사업추진을 유보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구역은 존치정비구역 등으로, 정비사업구역은 정비구역의 재조정 또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천시는 우편투표 실시를 통한 의견수렴 대상 구역 가운데 우선적으로 1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우편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eon.com

## 5월 1일부터 부천시민도 인천화장장 오전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1차(08:30), 2차(11:00), 3차(13:30), 4차(16:00)



### 인근 화장장 이용시 부천시민에게 이용료 지원비율

“시, 50% 지원 입법예고... 시의회, 70% 상향해야”

▶관련기사 3면.

##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을 만듭니다



### 경기도 교육청 선생님 존경 캠페인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생님 존경 캠페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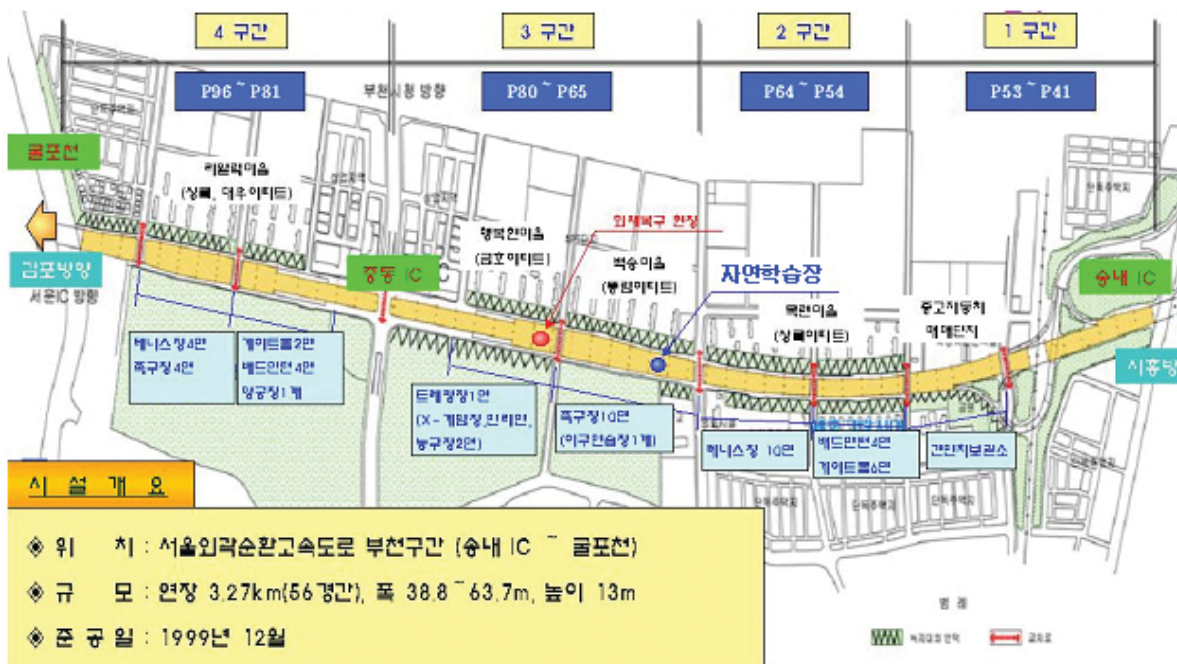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 캠페인 기간: 2011년 4월 21일 ~ 2011년 5월 20일

감사 전화, 문자드리기 | “라디오 스쿨”을 통한 존경받는 스승 소개  
감사카드 제작 전시 | “선생님 사랑해요” 학예발표회 · 전시 · 공연  
사제동행 걷기대회 | 도내 지역 문화공연, 전시회에 무료 관람  
선생님 캐리커처 그리기 | 스승 존경 사례를 읽고 독후감 쓰기  
선생님 감사 UCC 만들기 | “선생님 사랑해요” 사연 모으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식목행사 | “선생님 사랑해요” 영상축제  
Facebook에서 만나요 | 모교 방문과 옛 스승 찾아뵙기  
감사편지보내기 |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의 스승 찾아뵙기  
은사님 찾아뵙기 | 권역별 선생님들로 구성된 은사기념 음악회 개최  
스승 존경 사례를 읽고 독후감 쓰기 | 모교 방문과 옛 스승 찾아뵙기



#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부천시민 품으로’ 부천시, 시흥시와 공동 발전 협약 체결

경제·문화·교통·환경분야 상호 협력  
시설인프라 공동 사용 시너지효과 도모



## 테니스·족구·배드민턴·게이트볼·X게임장 등 오는 10월 체육·공원·레저시설로 탈바꿈 예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이 12년만에 부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오게 된다. 부천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부천고교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개정 협약을 지난 4월29일 체결함에 따라 하부공간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시와 도공 간 체결한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부공간의 사용 구간이 일부 조정돼 부천시의 책임 구간이 당초 부천시 행정구역 전 구간(3.27km)에서 부천시 점용구간(2.67km)으로 바뀌었고, 향후 지·정체 완화를 위한 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 전·후의 점용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 2006년 8월 당초 협약서에 비해 상호 의무와 권리

를 함의했다.

시는 하부공간에 임시 체육시설, 녹지대 등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19억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데 이어, 오는 6월 하부공간 활용시설에 대한 실시시설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공사에 도

로 점용 허가를 득한 뒤 오는 7월중 착공하면 10월에는 하부공간이 체육·공원·레저시설로 탈바꿈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총면적 16만5천874㎡ 중 8만3천80㎡를 활용해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양궁장, 자전거 트랙장, X게임장, 농구장, 야구 연습장 등 체육

시설을 설치하고 ▲수도, 간이 화장실 등 부대시설 ▲자연학습장,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한편 부천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시청 소통마당(대회의실)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 도로과 노점관리팀 ☎(032)625-416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활용 계획= 1999년 12월 준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은 송내IC~굴포천까지 총연장 3.27km에 폭 38.8~63.7m, 높이 13m로 송내IC를 기준으로 ▲1구간(P53~P41)은 견인차보관소가 들어서 있고 ▲2구간(P64~P54)에는 테니스장 10면, 배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6면 ▲3구간(P80~P65)에는 트랙킹장 1면,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농구장 2면, 족구장 10면, 야구연습장 ▲4구간(P96~P81)에는 테니스장 4면, 족구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4면, 양궁장 등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이같은 활용 계획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왼쪽)과 김윤식 시흥시장이 11일 오전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양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악 등 문화인프라와 시흥시의 수변 생태관광벨트 및 시화호 주변에 수려한 해양관광을 연계한 최고의 문화와 해양 생태·관광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협력기로 했다.

부천시와 시흥시는 그동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비슷해 그동안 지역문제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체결로 양 도시는 협력 사업을 부서별로 발굴해 추진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조사는 물론 정보 교류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heon.com

## 부천시민 배움터 ‘부천시민 학습원’… 7월 개원

6개 배움터공간·평생학습센터·자원봉사센터  
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장난감 도서관

부천시 원미구 십곡동 181번지 십곡복개천 구(舊) 시설관리공단 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 부천시민 학습원'이 오는 7월 개원한다.

'부천시민 학습원'으로 사용될 건물은 1천164㎡(350여평) 터에 연면적 43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은 지 26년된 건물로, 주차면수는 20면이다. 이에 따라 정식 문을 열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속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민 학습원'은 1층에 유아 및 장난감도서관과 5월5일 입주한 부천시 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 2층에는 4월9일과 26일 이전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배움터 등이, 3층 335㎡공간에는 배움터 5개(대1, 중2, 소2)가 각각 들어 서게 된다.

'부천시민 학습원'은 유아 및 장난감도서관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는 오는 7월에 개원식을 갖고 본격 개 방된다.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열 예정이다. '부천시민 학습원' 이용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032-625-2854, 시민 배움터(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learning.bucheon.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 착수

서울 강서·양천구와 공동 발주 대응  
강서구 5월17일·양천구 5월말 개최

부천시는 지난 3일 오후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만수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동안 주먹구구식 대응에서 논리적 대응으로 바뀐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강지구의 재산권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용역사는 물론 공무원, 지역주민, 국회의원 모두가 총력 대응할 문제"라며 "특히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되며, 향후 서울 강서·양천구와 공동 대응으로 최선을 다해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국회의원은 "고도제한 완

화면,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지난해 8월24일 부천시와 강서·양천구 3자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발주했으며, 부천시가 주관하고 있다. 이번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 용역'은 (주)시컨설팅(서울 서초구 서초2동 소재)이 맡았으며, 용역비는 3억1천860만원으로, 부천시가 부담하는 용역비는 34.13%인 1억870만원이며, 나머지는 서울 강서구가 58.44%, 양천구 7.43%를 각각 부담한다. 문의= 부천시 뉴타운개발과 고강지구팀 ☎(032)625-3722.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theBucheon

우 420-101 부천시 원미구 십곡1동 88-48번지 2층  
홈페이지 www.thebucheon.com  
광고신청·문의 ☎032-329-2313 FAX 032-329-2314

## 더부천신문사

전화안내 ☎032-329-2313  
등록번호 경기 다 01096  
E-mail: storm@thebucheon.com

발행인 許玉粉 편집인 姜泳百 인쇄인 이승철 편집국장 姜泳百

무가 발행 부천시 전지역 배포 2008년 9월23일 경기 다 01096 <격주간 발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더크게 듣고 더멀리 뛰는  
- 더부천 -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www.bucheonin.com / www.bucheon.me

‘인터넷 더부천’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깔끔하고 절제된 고품격 온라인 뉴스서비스  
더 새롭게 더 정확하고 더 세련되고  
더 빠르고 더 강해졌습니다!

**The** 성장하고 **The** 사랑받는 **The** 부천이 되겠습니다.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www.thebucheon.com

기사 제보·광고문의 : ☎(032)329-2313 / FAX (032)329-2314  
e-메일 : storm@thebucheon.com / 010web@naver.com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키로 결정

의장·부의장·4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6월 사용분부터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부천시의회(의장 김관수)는 의장, 부의장 및 4개 상임위원장(의회운영·기획재정행정복지·건설교통위)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의회는 그동안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 공감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 방법 등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 조례안이 발의 조례 의결에 앞서 시행함으로써 시행정작을 줄이자는 ‘보류’ 의견에 따라 업무추진비 공개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오는 6월 사용분부터 다음달 15일 이내에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council.bucheon.go.kr·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관수 의장(민주당)은 업무추진비 공개 결정에 대해 “올해 초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 시의회 출범 20주년에 맞춰 시민에게 보다 투명한 의회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편성되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

/부천의 참언론－더부천 www.thebucheon.com

오는 6월 사용분부터 다음달 15일 이내에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council.bucheon.go.kr·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관수 의장(민주당)은 업무추진비 공개 결정에 대해 “올해 초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 시의회 출범 20주년에 맞춰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

사망일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부천시민 대상

9월부터 부평화장장 이용료 50% 지원 ‘골자’

부천시는 5월부터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시립화장장(이하 부평화장장)을 부천시민에게 하루 4회씩 이용토록 개방했으나 인천시민이 6만원에 이용하는 반면, 종전처럼 10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말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하거나,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에 가구당 화장장 이용료(화장 장려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화장 장려금 지급 방법은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계좌 입금하도록 돼 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하

거나,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및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같은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시행 일자는 시민 의견 수렴 및 부천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심사 등의 절차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민이 부평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9월부터 화장장 이용료 50%

“화장장 사용료 지원 50%→70% 상향해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수정 보완 요구

부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14명)들은 부천시가 화장장 이용 시 가구당 50%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만수 시장의 현 집행부가 장기간 지속돼온 추모공원(화장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민 갈등을 적극 해소하고 부천시민의 장례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적극

한영하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부천시민들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는 기준”이라며 조례안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입고예고한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광역화장장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인 건의 및 인접도시와 끈기를 갖고 협의하고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 50% 지원을 70%로 상향, 지원토록 조례를

수정하며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지원과 화장장 이용료 지원안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해 조례에 명기할 것을 적극 요구하는 것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순수 건립비에 기타 도로 등 부대시설 비용 등이 빠져 있어 이것을 합치면 건립비는 300여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화장장 건립시 부대 비용 및 운영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 대비시 가구당 화장장 이용료

지원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지원과 화장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법예고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이 수정 보완돼야 하고, 시 집행부에 민주당의 이같은 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시 집행부와 화장 장려금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장 이용료 적정비율… ARS 설문조사 실시

화장장 이용료 적정비율… ARS 설문조사 실시

부천시가 화장장 문제 해소를 위해 부천시민 14만4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ARS(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 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 항목은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시립화장장(부평화장장)을 5월부터 부천시민이 오전 시간대(오전 8시30분, 오전 11시)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지 여부 ▲화장장이 있는 타 지역의 화장장 이용시 현지인보다 높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부천시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할 경우 적정 비율로 30%, 50%, 70%, 100% 등 4가지를 제시해 어느 정도가 적정 비율인지

여부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 이용시 어느 화장장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벽제화장장, 인천(부평)화장장, 수원화장장, 성남화장장, 기타 순으로 제시해 묻는 한편, ▲화장장 문제 해결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인천화장장을 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ARS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중인 타지역 화장장 이용시 이용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적정 지원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단기적 대책(화장장 이용시 이용료 지원과 더불어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방침이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시의회 행정복지위

‘자살 예방 지원조례안’ 통과

한선재 시의원 대표발의… “자살 예방대책 추진”

자살 예방위원회와 센터 설치 운영 및 교육 실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강진)는 지난 19일 자살 예방을 위해 예방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골자로 한선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선재 시의원(민주당·소사본1·2·3동)은 “2년여 전 주변 사람들의 자살을 접한 이후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동안 광

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살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루평균 42.2명꼴인 1만5천413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명(부천시는 27.7명)으로 OECD 국

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처럼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없는 만큼, 자살 예방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은 자살 예방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자살 예방위원회와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지역 친박계 인사들, 희망포럼 출범

홍건표 전 시장 주축… 향후 활동 관심

부천지역 친박계(전 박근혜) 인사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그동안의 물밑 활동을 접고 ‘부천 희망포럼’이란 모임을 꾸리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들 친박계 인사들은 지난 13일 오후 부천역사 웨딩홀에서 ‘부천 희망포럼’ 출범식을 갖고 공동대표로 홍건표 전 부천시장, 유지훈·오정섭 전 경기도의원이 맡았다.

‘부천 희망포럼’의 출범은 당장은 내년 총선에서 원미갑과 오정구 지역에 출마 여부를 타진하려는 친박계 인사들의 행보라는 점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까지 염두해 둔 모임이라는 점에서 친이·친박계로 나뉜 한나라당 내 복잡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천지역정가에 출몰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식객’ 허영만 육필원고 15만장 부천에 보관

〈식객〉, 〈타짜〉, 〈메트〉 등 수많은 인기만화를 선보인 국내 최고의 만화가 허영만(63) 화백이 37년 동안그린 육필원고 약 15만장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영사문화단지 내 자리잡은 국내 대표적 만화진흥기관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기탁돼 지난 19일 국내 최대 만화박물관인 ‘한국만화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됐다. 이번 육필원고 기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설득했고, 최근 허영만 화백이 한국만화박물관 수장고와 시설, 관리현황 등을 직접 둘러보고 결심을 얻어냈다. 허영만 화백은 “만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부천시 정기간사, 6월말~7월초 4~5급 한자릿수에 머물듯 6급 승진 두자릿수 예상돼

민선 5기 출범 이후 부천시 공직 사회의 3월 정기간사가 6월 정기간사로 바뀐 가운데, 오는 6월말에서 7월초에 단행될 예정인 부천시 정기간사에서는 7급(주사보)에서 6급 팀장(주사)으로의 ‘급속 승진’이 ‘두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사기진작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하면 직원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20% 범위내에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초급 간부에 해당하는 6급으로 승진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7급 이하 공무원의 자기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도 상위 직급인 6급에 결원이 없을 경우 수십년을 근무하더라도 승진이 불가능했다. 부천시의 경우 이번 6월 정기간사에서 급속 승진자 수는 20~30명 안팎에 될 것으로 보이고, 6급 명퇴 등 인사 수요가 있을 경우 승진자 수는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장급인 4급(서기관)과 과장급인 5급(사무관) 승진은 여전히 인사 수요가 가변적이어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급 인사 수요는 올해 12월 말에 정년인 1951년생인 조재형 재정경제부장이 6월말 이전 자진 사퇴 또는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지 여부에 대한 거취문제는 오로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지켜봐야 하고, 1952년생인 장용은 전 오정구청장의 거취문제 역시 6월말 전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4급 인사 수요는 직무대리 승진 인사 1자리에 불과하고, 배효원 맑은물정수사업소장이 직대 피리표를 떼고 승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5급 승진인사 수요는

가변적이지만 2~3명 선이 될 것으로 보여 승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전보인사는 6급 급속승진이 두자릿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폭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는 최근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을 관장하는 국장급 4급(서기관) 1자리를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도에서 승인 요청을 할 경우 인사적체 해소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4급 1자리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성남시(정보문화센터)와 용인시(정보문화기획단→ 평생교육원), 안양시(평생학습원)에서도 4급을 임용하고 있는 터여서 경기도에서도 부천시의 4급 1명 승인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도에서 4급 1자리 승인이 날 경우 오는 9월말 또는 10월초로 예정된 상동도서관 개관 시기에 맞춰 인사를 시립도서관장직을 4급으로 발령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3년생 구청장의 거취문제는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25년 노하우!

100% 수제 맞춤 양복!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사거리 위치

을지라사 ☎ 032-346-1040

더부천

더부천 후원 계좌

국민은행 606001-01-350994

우리은행 1002-837-947433

디자인이 소리납니다

· 카디로그 제작 · 신문잡지광고 · 건설분양광고 · 전단지제작 · C.I.P · POP

종합광고회사

주)지맨커뮤니케이션

02) 516-450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17 104

공증인가법무법인 오아시스

대표변호사 조영상

소송 ☎032-325-3115

공증 ☎032-321-6611

www.leejaek.co.kr

내집처럼 편안한 세무상담!

이재옥 세무회계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62번지 뉴월드프라자 4층

T.032)328-5300







# 소사~대곡 복선전철, ‘일반철도사업 전환’

## 광역철도사업 추진시 350억원 부담 덜어

소사역에서 안산 원시역간 복선전철사업(3월말 착공)과 연계 운행할 소사~ 고양 대곡간 복선전철사업이 당초 광역철도사업에서 일반철도사업으로 전환해 해 추진하는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돼 부천시의 재정 부담이 해소되게 됐다.

소사~ 대곡간 복선전철사업은 총 연장 19.5km 가운데 부천구간은 6.3km로 소사역~ 원종~ 김포공항~ 고양 대곡역을 연결하는 노선으

로,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시 사업비 부담율이 국가 75%, 경기도 17.5%, 부천시 7.5% 비율이어서 부천시에서 약 35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부천시는 소사~ 대곡간 복선전철사업은 일반철도사업으로 건설 중인 소사~ 원시간 복선전철사업의 연장선이며 간선기능을 포함하는 철도라는 점을 들어 지난 2008년부터 중앙부처에 사업비 부담이 없는 일

반철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소사역을 중심으로 안산 원시역을 연결하고, 고양 대곡까지 연결하는 복선전철사업은 모두 지하철로 건설되며,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기능 수행과 장래 남북 철도망 연결을 대비한 간선철도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사~ 원시간은 올해 3월말 착공해 오는 2016년 3월 개통 예정이며, 소사~ 대곡간은 올 하반기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16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건설사업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가운데, 소사~ 원시간, 소사~ 대곡간 복선전철사업이 완공되면 부천시는 사통팔달의 격자형 지하철망이 구축돼 시민들의 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서울과 인천, 서남부권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로 부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heon.com

# 오정레포츠센터 개관... 부천시 직영 ‘복합문화공간’

## 수영장·실내체육관 갖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헬스·요가 등 ‘체력단련장’... 오는 9월 오픈 예정



부천시 오정구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오정레포츠센터’가 지난 2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오정레포츠센터의 시설 운영은 시청 체육진흥과(☎032-625-2496)에서 맡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아래 관련 참조.

이날 개관식에서 김만수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오정레포츠센터 개관으로 주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포츠공간이 생겨 기쁘다”며 “오정구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과 자

금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사진>

오정레포츠센터는 사업비 420억원을 들여 오정구청과 인접한 오정동 123-1 일대 1만7천926㎡ 부지에 건축면적 9천884㎡,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돼 국제공인 2급 규모 수영장 50m길이 10레인과 1천 21석의 관람석, 탁구·배드민턴·음악놀이방·농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시설을 보완해 헬스·요가·재즈댄스 등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1천23㎡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는 198년의 주차장과 900여개의 로커 및 사우나 시설이 완비된 샤워장이 갖춰져 있다.

시는 개관에 앞서 수영, 아쿠아로빅,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7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방문 접수한 결과, 지난 9일 기준으로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일반 수영 강습, 아쿠아로빅, 수중재활 등 프로그램 67개반에 모집정원 2천635명의 55%인 1천 450여명이 참가 접수를 했으며, 체

육관에서 운영하는 농구, 탁구, 배드민턴교실과 음악 놀이방 등 프로그램 10개반에 모집정원 280명의 65%인 180여명이 참가 접수를 하는 등 오정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1일부터는 오정레포츠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프로그램 참가 접수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시민의 방문 접수를 병행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회원 가입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체력단련장을 오픈하고 헬스와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 모집은 기존 회원은 매일 16~20일, 신규 회원은 매일 21~25일까지(평일 오전 7시~ 오후 9시, 주말과 휴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오정레포츠센터 대표 전화(☎032-625-8230~1로 하면 된다.

오정레포츠센터 홈페이지  
ojeongleports.bucheon.go.kr

# 한미 청소년 부천 국제교류캠프 55명 모집

## 6월15일까지 접수... 7월23일 1박2일 일정

부천시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 파견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2011 한미 청소년 부천 국제교류 캠프’에 참가할 부천지역 청소년 55명을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접속해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국제교류팀(☎032-625-2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 대상자는 부천 관내 학교

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이며,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인성 및 어학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청소년들은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 국비 파견한 미국 청소년들과 오는 7월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부천시 관내 시설을 탐방하며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부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연스럽게 한미 청소년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다. 또 준비한 장기자랑을 부천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해 국제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미 청소년 부천 국제교류캠프는 부천시와 국제학생교류기구의 협력사업으로 실시된다. 국제학생교류기구(www.eil.or.kr)는 전세계 24개국 35개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부천장학재단, 2억6천700만원 장학금 전달

## 대학생 69명·고교생 50명 선정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이사장 원종섭)은 올해 장학생으로 대학생 69명과 고교생 50명 등 119명을 선발, 지난 13일 오후 시청 3층 소풍마당(대회의실)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부천장학재단은 지난 3월10~25

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등 주민센터 등 기관 추천과 개별 접수를 받은 283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119명을 최종 선발했다.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은 1인당 300만 원, 고교학생은 120만원씩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50%씩 지급한다.

(재)부천장학재단은 부천시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437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자세한 장학 사업은 홈페이지(bcj.or.kr)에 안내되고 있다. ☎032)625-2507.

# 부천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 관내 동물병원 53곳에서 무료 등록

부천시는 애완견 등 반려동물(伴侶動物)을 보호하고 유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으로, 소유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관내 지정 동물병원

53곳을 방문하면 해당 동물에 전지갑을 시술해준다. 칩 안에는 동물 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소유자 인적사항과 개의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이 등록된다.

부천시의 반려동물 등록제 시범사업의 대상 애완견은 4천두로 5월10일 현재 12%인 470두

가 등록을 마쳤다. 이 사업은 마리당 21만2천원이 소요돼 총사업비 4천80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해 무료로 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기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를 오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부천시 ‘무료 법률상담센터’... 월~금 상담서비스

부천시가 지난 2월부터 매주 월~금요일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세무, 노무, 건축,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센터’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센터’는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노무사회, 부천세무사회, 부천건축사회, 원

미·소사·오정구 공인중개사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 매일 요일별 순번제를 정해 시청 민원실 법률·행정상담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세무사, 수요일은 노무사, 목요일은 건축사, 금요일은 공인중개사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

으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도 추가 운영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위원의 근무 일정표는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부서 새소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상담위원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시청 법률 상담센터(☎032-625-2457)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 ‘오정레포츠센터’... ‘시 직영’의 의미는...

# “민간위탁사업 경영평가... 직영 전환 확대” 신호탄

오정레포츠센터는 부천시가 자체 관리 운영을 맡아 직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경영실적 대비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부천시가 민간위탁사업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위탁비가 지출됨에 따라 시 자체 직영사업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오정레포츠센터’의 시 직영에 따른 운영실적은 이의 유사한 민간위탁사업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만수 시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부천시의회 제16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병국 의원(운영위원장)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혁신적인 관리 방안 및 위탁사업의 직영 전환 검토’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고

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우선, 민간위탁이 본연의 목적대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점검해 혁신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사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인 경영평가 실시와 총괄부서를 지정해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민간위탁을 줄이고 직영을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예산투입 대비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서비스 질이 낮은 사무에 한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직영과 위탁사업

에 대한 비교 경영평가를 토대로 직영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민간위탁 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예산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천시 예산 편성과장부처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도입되는 올 하반기는 오정레포츠센터의 운영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다소 어렵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999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민간위탁사업이 꾸준히 늘어나 ㈜대우건설에 위탁한 남부·북부수자원생태공원 통합운영 사업 등 57건에 380억원의 위탁비가 지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만수 시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위탁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다”며 “이렇다보니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소홀, 수탁자의 방만한 운영, 위탁비 상승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자체 직영은 지난해 10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자연생태박물관’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한 일부 사업에 한정돼 있고, 이번에 개관한 ‘오정레포츠센터’가 첫 직영 대상 시설이 됐다.

이에 따라 오정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경영실적은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비교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되고 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부천시,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보노단’ 위촉

## 각계 전문가 17명... 전문분야 재능 기부

부천시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프로보노단’을 구성하고 지난 16일 오전 시청 소풍마당(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프로보노(Pro Bono)’란 라틴어 ‘Pro Bono Publico(공익을 위하여)’의 줄임말로 원래는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법률 뿐 아니라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자발적이고 대가없이 공공을 위해 전문성 기부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부천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이날 위촉된 ‘프로보노단’은 교수 4명, 변호사 및 법리사 2명,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명, 법무사 2명, 공인노무사 1명, 취업상담관, 컨설팅회사 대표, 경영지도사 등 4명이다.

이들 ‘프로보노단’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법률, 세무, 회계, 경영,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하고 사회적기업은 각 분야 ‘프로보노’의 도움을 받아 경영에 따른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프로보노단은 △양재영 교수(유한대) △김태우 교수(유한대) △황덕수 교수(유한대) △송국섭 교수(부천대) △김주관 변호사 △나득수 세무회계사(부천시의원) △문덕인 세무회계사 △강봉수 법무사 △송경식 법무사 △서종식 공인노무사 △김준용 변호사 △황현아 신정여상 취업담당관 △권기룡 (주)엘아이씨 대표 △우인회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처장 △이명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 △황문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 △신홍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컨설턴트 등이다.

한편, 부천시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4년까지 106개 사회적기업을 통해 2천15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17일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이달 9일에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 및 지원조직과 연계해 ‘부천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32)625-2707.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heon.com

## 소사본3동 주민센터

소사구 소사본3동 주민센터(동장 이승표)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추억으로 떠나는 영화 여행’이라는 테마로 무료 영화를 상영해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규)가 주민센터 2층 사랑방에 작은 영화관을 마련해 옛 영화를 공짜로 상영해 어르신들에게 젊은 날의 추억과 향수에 젖게 하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 4월28일에는 1970년대 상영돼 큰 인기를 모은 박근형, 정영숙 주연의 <임파 없는 하늘 아래>를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추억의 영화’ 상영 경로당 설문통해 어르신들 좋아하는 영화

상영해 어르신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영화를 관람한 어르신들은 “옛 생각도 나고... 젊은이들이 볼만한 영화를 볼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이승표 소사본3동장은 “경로당 설문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사본3동 주민센터는 매월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은 머리하는 날’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032)625-6687.

## 원종2동 주민센터

요즘 가정마다 디지털카메라(디카) 1대씩은 갖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 되면서 주로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저장 용량이 커지면서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찍은 디카 사진들이 컴퓨터에 보관되면서 집안에 있는 사진 앨범에 끼워지는 사진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가족들이 모여 앉아 사진첩을 보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오정구 원종2동 주민센터(동장 윤기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같은 디카와 컴퓨터에 갇힌(보관된) 사진을 밖으로 꺼내 가족의 행복한 모습과 이웃들과 어울렸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함께해서 행복한 가족, 어울려서 든든한 이웃’이란 사진 콘테스트를 열고 출품된 작품들을 동주민센터 내

## 주민센터 갤러리 활용 ‘디카 탈출 사진展’ 가족과 이웃들 소중한 추억들 새록새록

주민 센터에 지난 3월 마련한 ‘Feel 통(通) 갤러리’에 전시해 눈길을 끌게 하고 있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지난달 11~22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51점의 사진이 출품돼 5월 한달간 전시된다. 시장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 은상, 동상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원종2동 주민센터는 앞으로도 ‘Feel 통(通) 갤러리’ (거칠게 갤러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행사를 열 계획이다. ☎0320625-7645.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

6월3일까지 ‘스승의 날’ UCC 공모전  
초·중·고 재학생 대상... 3~5분 창작물

경기도교육청은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경기도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6월3일까지 ‘행복한 선생님이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으로 학생 UCC 공모전을 연다.

공모 작품은 지난해 1월 이후 제작된 모든 ‘창작 UCC 영상물’로, 내용 및 형식에 제한은 없으며 3~5분 내외의 창작물로 avi, mpeg, swf, wmv 등의 파일 형식이면 된다.

UCC 영상물 제출 방법은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 경기교육 인터넷방송(www.ggetv.net)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행복한 스승 만들기 UCC공모전 게시판’에서 ‘영상물 업로드’를 통해 파일명(작품제목, 이름)을 기재하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주소(경기도 장안구 영화동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과 학직업교육과 공모전 담당자 앞)로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해 응모 마

감일(6월3일 소인분)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당선작 발표는 6월17일에 하며, 시상식은 6월17일 도교육청에서 직접 시상하며, 초·중·고로 나눠 △대상 각 1팀에 50만원 상당 △금상 각 1팀에 30만원 상당 △은상 각 2팀에 20만원 상당 △동상 각 3팀에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이번 ‘스승의 날’ UCC 학생 공모전 관련 기타 문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또는 경기도교육 정보 연구원 홈페이지(www.kerinet.re.kr)를 참고하면 된다. ☎(031)249-0266.

##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 참가작 모집

7월 한달간... 초등학교도 참가 가능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영화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 참가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는 오는 8월12일 유엔 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생을 포함해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7월 한달간 접수받는다.

영화의 주제는 성평등, 여성인권, 여성과 남성이 협력해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 등이고, 형식은 20분 내외의 단편영화로 다큐멘터리, 극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는 제한이 없다. 응모 부분은 초등, 일반(중·고등학교생), 특별(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응모 희망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이나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ygeff)에서 공모신청

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공모신청서 1부, A4용지 3매 분량의 사립시스, 출판작 DVD 1부를 동봉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1번지 신풍플러스타워 704-1호 월원영화사 제3회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참가작 중 대상 1편에는 100만원, 최우수상 1편 70만원, 우수상 4편에 각 50만원씩의 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월원영화사(wolvonfilm@gmail.com · ☎031-902-0026)로 하면 된다.

## 산울림청소년수련관, 28일 ‘100원 영화제’

오전 11시~ 오후 3시까지 반딧불이 소극장  
생태·환경 주제 영화 2편... 5회 걸쳐 상영

수주로변 원미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관장 박병권)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련관 내 반딧불이 소극장에서 관람료 100원을 받고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 2편을

5회 상영한다. 이른바 ‘100원 영화제’인 산울림 청소년수련관의 생태 시네마는 주말을 이용해 실시하는 특성화 사업중 하나로, 이달에는 ‘나무’와 ‘강(江)’을 주제로 한 영화 2편을 선정해 상

영한다. 상영작은 ‘나무를 심는 사람’(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위대한 강’(낮 12시, 오후 2시) 등이다.

반딧불이 소극장 좌석 수를 감안해 사전 관람 접수를 받지 않고 매회당 선착순 99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료 100원은 굿네이버스 부천시지부에 전달돼 소의 청소년들을 돕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032)348-4482.

## ‘노숙인, 농부가 되다’

경기도가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한 거리 노숙인 4명이 지난 19일 강원도에 있는 농촌 마을로 새 삶을 찾아 떠났다. 인문

학 귀농프로그램은 귀농(歸農)에 관심있는 거리 노숙인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4일부터 5월13일까지 주당 2시간씩 진행됐다.

도는 귀농한 노숙인들의 파견 기간은 1년에서 2년까지며, 농가 일손을 돕고 농가주로부터 1인당 5만~7만원 가량의 일당을 받아 1인당 연간 900여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도는 이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1인당 2개월간 월세방과 식비 등 경비 120만원을 경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며, 3개월부터는 귀농자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와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는 귀농사업단 관리하는 한편,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귀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 ‘당권·대권 분리’ 놓고 戰運

## 정몽준-김문수 19일 만남서 “당권·대권 분리 개정해야”

박근혜 전 대표는 “당권·대권 분리 반대”... 결론 촉박

한나라당 내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몽준 전 대표가 오는 7월4일 전당대회 전까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8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38회 희망의 경기포럼’ 강사로 초빙돼 ‘대한민국, 위대한 탄생을 위하여’란 주제 특강에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가진 면담에서 당내 현안

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래 면담 내용 참조.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면 ‘관리형 당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한나라당이 정당이기를 부정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토록 한 현행 당헌·당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하며 “당이 선출직 7명의 발을 묶으면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며, 누가 주류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이번 7월 전당대회에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표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전 대표는 친박 등 당권과 대권 분리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 유력 대권후보로 꼽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는 당권·대권 분리하는 규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 7.4 전당대회 규칙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만만찮은 당내 갈등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김문수 경기지사 정문준 전 대표 면담 말·말·말

-정몽준 전 대표: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나라당이 처한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처한 현실은 제왕적 총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도부 리더십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에 안 맞다.

제가한나라당 들어온 지 몇 년됐고 18대 7월에 전당대회 나갔는데 그때 지도부에 붙여진 이름이 관리형 대표다. 언론에서 붙여줬는데 그때 상황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재오 의원께서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아마 당선됐으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게 안되면서 자연히 관리형 대표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것이 18대 초다.

18대 후반에 들어가서 당권, 대권 분리규정 때문에 관리형 대표라고 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스스로 정당이기질 부정하는 것이고, 상식에 맞지 않다. 또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데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을텐데, 대표만 되면 대선후보 경선에 못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 9분중에서 지명직 2분을 뺀 7분 전부가 그러한 제한에 해당된다. 원내대표, 당대표, 정책위의장,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다 그렇다.

한나라당에 인재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어려울 때 7명이나 그러한 규정으로 제한하면, 그리고 또 지금 변화, 쇄신을 말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추진할 중심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 문제는 중심세력이 없다. 지금까지 기자분을 만나면 주류, 비주류란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야기했다. 제가 한나라당에 와서 보니 주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주류가 누구냐고 오히려 제가 기자분들에게 묻는다.

한나라당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으로 7분을 묶고, 당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힘을 받으려면 국민이 볼 때,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스스로 상식에 맞지 않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대선 다 어렵다는 전방인데, 소위 변화, 쇄신하지는 분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더 이해 안된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김문수 경기지사: 당이 구조적으로 7명의 발을 묶어두는데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선에 나온만한 사람은 다 당을 못 끝낼 누가 당을 끄는가. 주류가 누구고, 리



△19일 오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에서 열린 희망의 경기포럼에 강사로 초빙한 정문준 전 한나라당 대표를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경기도청 대변인실 제공

더십이 누구인가.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저는 요즘 당에 오래 있지 않아서 대표만 못 하는 줄 알았는데 7명씩이나 다 못하게 한다고 한다. 너무 과하다.

-정몽준 전 대표: 선출직 당직이라고 표현돼 있다. 가령 선출직 당직 7명 제한하면 7명중에 어떤 분이 정두언이든 남경필이든 이주영이원이든 이분들이 내년에 일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 기대가 높아져서 국민들로부터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당내 규정 때문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큰 인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되기 전까지 상원의원 2년 하고, 그분이 대통령된 것은 6개월, 길게 봐야 1년에 있던 과정이

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1년이 남았는데 스스로 묶어두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긴 힘들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상식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기자단에서 ‘두 분의 의견이 관철이 된다면’이라고 묻자 -김문수 경기지사: 들어보니 관철이 잘 안 될 것 같다.(일동 웃음)

-정몽준 전 대표: 한나라당이 이번 분당 선거에서도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서 심판받았는데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볼 때 한나라당이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본다. 상식에 맞게 일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 못 하는지 시험적이라고 본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heon.com

한겨레에듀 www.hanibook.co.kr 02-6383-1602~3  
\*한겨레에듀는 한겨레출판(주)의 교육출판 브랜드입니다

# 논술, 1주일이면 된다!



## 논술 준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논술 시험은 몇몇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지, 백일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즉, 그3 수험생이 공공교육에서 제대로 배운 뒤,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 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글솜씨를 타고나지 않아도 기준에 맞추어 익히면 해결할 수 있지요.

-《머리말》에서

## 정말 1주일이면 논술을 끝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논술 지침서와는 달리 글쓰기 단계를 매우 상세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에 전혀 자신 없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부모, 입사 시험 준비생, 글쓰기 지도교사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범 답안 1권을 포함, 총4권 1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책 3권을 각각 이틀에 한 권씩 떼어 나간다면 6일만 해도 논술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논술 핵심판(전4권)

제1권 논술 문장과 개요 짜기 | 제2권 단락 쓰기와 요약하기 | 제3권 글쓰기 실천과 평가하기 | 제4권 모범 답안  
한울식 지음 | 총 648쪽 | 25,000원

## 주제로 익히고 유형으로 다지는 실전 논술의 길잡이



핵심 주제, 교과서 개념,  
관련 자료, 예상 논제로  
이어지는 시스템 학습!

통합논술 교과서

1 실과 철학  
2 사회와 문화  
3 경제와 과학

전홍식 · 김수연 · 김창석 공저  
각 권 18,000원



실제 논술 시험의  
모든 유형과  
해결 방안이 한 권에!

25가지 문제 유형으로 보는  
유형별 논술 교과서

전홍식 · 김수연 · 김창석 공저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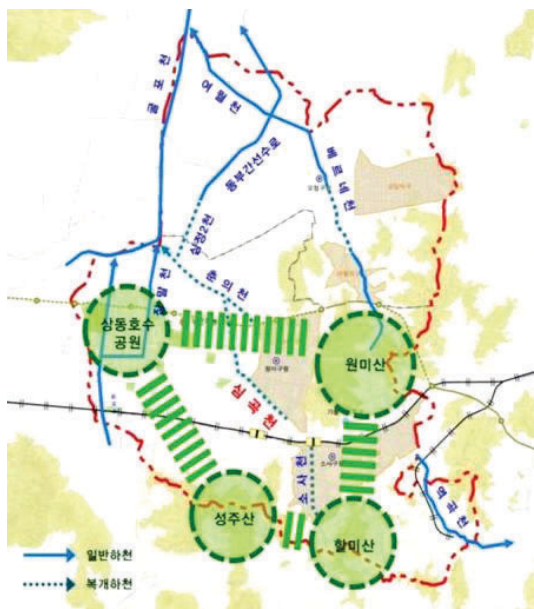




## ◆ 국토연구원,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 심곡복개천 복원시 “청계천 정도 경제적 타당성 있다”

편익비 730억 추정... 총사업비 583억원 마련 ‘관건’  
인근 상가 교통·주차불편 ‘반대 민원’도 만만찮아  
공사 3년 걸려 영업권 피해·교통대책... ‘선결 과제’



780m구간을 복원할 수원천은 총사업비는 676억원(㎡당 단가 8천667만원), 694m를 복원한 노송천은 총사업비 268억원(㎡당 단가 3천860만원), 900m를 복원한 성북천은 총사업비 185억원(㎡당 단가 2천50만원) 등이었다.

국토연구원은 또 경제성 분석에서 치수 편익, 저수 호안사업, 수질 호안 등 심곡천과 유사한 하천복원사업의 비용과 심곡천 주변지역의 지가 상승분을 편익으로 추정해 편익비용을 산정한 결과, 심곡천 복원으로 예상되는 총 편익은 635억원으로 비용편익비는 약 1.09로 산정됐다.

또한 평균 가구당 편익을 연간 4만5천287원을 적용해 부천시 가구의 5년간 편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는 심곡천 복원으로 예상되는 총 편익은 730억원으로 비용 편익비는 약 1.25로 산정됐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경제성 타당성 검토와 관련, “기성 시가지 하천정비사업에는 가구당 편익 분석방법론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당 편익을 기준으로 비용편익비는 1.25로 산정돼 이는 민감도 분석을 감안하더라도 청계천 정도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심곡복개천변에 위치한 상가(식당업 22%·차량관련업 15%·가전제품 판매업 1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곡천 복원사업에 대해 67%(51세대)가 알고 있었으나, 65%(49세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상가 대부분은 차량관련업 종사자로 교통 및 주차불편 발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상가에서는 복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응답자의 45%(34세대)가 상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으며, 29%(22세대)가 주차 및 교통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원사업에 찬성하는 상가는 22%(17세대)로 식당(6세대)과 가전 대리점(4세대) 등 유동인구에 민감한 업종으로 분석됐다. 심곡복개천변 상가는 86%(65세대)가 본인 소유의 상가가 아닌 임차인이며, 응답자 63%(48세대)가 사업구역 인접(원미, 소사, 심곡동)과 사업구역 이외 원미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타당성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양방향 2차로의 차선과 폭원(19m), 높이(3m) 수준의 하천 단면을 구성할 경우 홍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사로 인한 상권 활동 저해를 대비해 하천과 인접한 수변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계획적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사사례 분석에 의한 비용편익비는 약 1.25로 분석돼 수원천 수준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상가 이용자는 녹지공간 창출로 찬성하는 반면, 인접 상권의 점포 운영주는 대부분 상권 활성화와 교통 불편 요소로 반대 경향이 높아 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추진시 향후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복원사업 기간(수원천의 경우 타당성 및 기본계획연구기간 2년, 기본설계 1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4개월, 기본계획 등 제반 계획기간이 약 3년 소요, 수원천 공사기간은 2009년 7월~2011년 9월로 2년2개월 소요)과 ▲주민대책 기본방향을 꼽았다.

특히 복원사업 공사중 주민 대책으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사항, 주변상가의 영업 지장에 따른 민원, 인접 건물의 균열 침하 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최신의 저소음·저진동 공법 사용과 충분한 환경 저감 방지 시설물 설치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차선 이상 확보·유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단계별 교통처리로 통행 차량 및 영업권 피해 최소화, 건물 피해 예상시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 민원 보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심곡천 복원시 주민 대책으로는 보행자 통행 단절에 따른 생활 불편, 홍수로 인한 범람 피해, 복개천 함류부 주변과의 부조화 등으로 꼽고,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교량 설계를 반영하고 100년 빈도 홍수위를 고려한 설계, 그리고 고수부지 연결교량 신설로 경관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천 내부공간의 수심은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저수위의 설계를 유도하고, 인공분수와 벽천 등의 다양한 경관·행위적 관련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절에 따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여가활동의 장소로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복원공법은 절단공법(DWS)과 파쇄공법(Crusher와 Breaker)을 슬래브·교각부·교대부 양벽·차집관 등에 적합한 방식을 혼합 적용, 유량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청계천 수준보다 낮고 성북천 수준 정도인 30cm 내외로 설정, 인공형과 자연형 호안을 적절히 배치하되 친환경적 자연형 호안 위주의 설계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천 인접부는 대상지 주변의 지형 및 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부의 설계와 문화·체육시설 등 위치를 고려해 보행 도선계획, 공사중 및 시행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교통 혼잡을 최대한 완화(우회도로 및 공용주차장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지 용수 확보 방안과 관련, 갈수기(11월~2월)에

고 봤다.

국토연구원은 심곡천 복원 1.2km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뉘 ▲A구간은 자연을 최대한 살리며 생태복원공간 조성(자연형 호안을 혼합하는 등 자연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형 하천형태의 복원 테마 설정) ▲B구간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현재의 복개 구간 폭원 보다 넓은 보행자 및 주민들의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해 복합적인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C구간은 어린이 및 학생의 이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학습공간으로 조성(어린이와 학생들이 하천공간을 학습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심곡천의 과거 스토리텔링 시설을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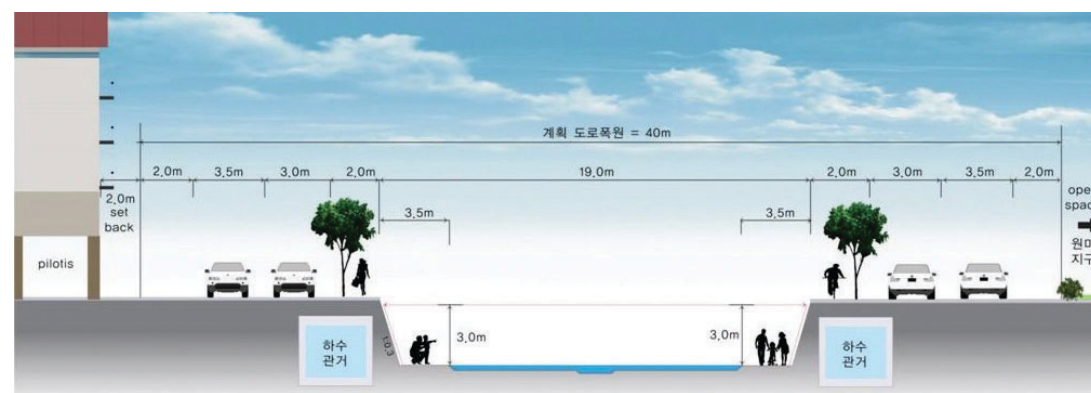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지난 1986년 복개돼 25년이 경과된 흥천정 원미사거리에서 기동교회가 있는 중동신도시 지구계까지 연장 1.2km구간 폭 40m의 왕복 6차로와 총 267면의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현재 심곡천은 원미구 소사구 소사동 쌍굴다리에서 발원해 소명여고와 원미초교와 부천소방서에서 거쳐 신흥로를 따라 흐른 뒤 다시 계남대로를 따라 끝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

중이신문 더부천  
한국 ABC가입

부수공사기  
한국ABC가입



국토연구원은 그밖에 심곡천을 복원할 경우 계획 폭은 18.5m 이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복원구간이 폭 40m의 왕복 6차로인 관계로 공사중 교통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 물공급이 가능한 충분한 수량 확보와 양호한 수질, 수처리 시설 운영 비용 최소화 방안과 경제성을 감안해 하수처리수, 지하수 및 빗물 처리시설(여과 및 소독시설)을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도심 속 시골스런 분위기

# 안골보리밥



특선메뉴

보리밥 정식  
얼큰이순두부  
해물 파전, 동동주  
얼큰추어전골  
낙지닭도리탕  
누룽지백숙  
도토리묵  
부침두부, 생두부



예약문의 ☎ 032-674-4585